

디모데 전서 1-2

Tape #C2614

By Chuck Smith

First Timothy.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ur (1: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1:1),

And the Greek word is “the royal commandment” of God; it’s a word that is used when a king had made a decree. It is interesting that Paul so often introduces himself as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But here he declares he is an apostle by the commandment of God.

바울은 종종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사도라 표현하곤 했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어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란 그리스어는 왕이 법령을 반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The word apostle is one who has been sent out; idea of an emissary or an ambassador. And that’s exactly what Paul saw himself, as an ambassador of Jesus Christ, one whom the Lord had sent out to represent him in an alien country. We’re in a world that’s alien to God, but we are God’s representatives here. We are here to represent God on this alien planet. And so “Paul,” one who has been sent out by the royal decree, “by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ur.

사도란 ‘보내심을 입은 자’를 가르키는 말로써 보통 개인 사절이나 대사의 신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나라에서 그를 대표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예수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겼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께는 외국이 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이방 나라인 지구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왕의 명을 좇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곧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것이라는 뜻입니다.

Now there is quite a bit of Old Testament root in the idea of God our salvation. David mentions it in the psalms. Moses mentions it in Deuteronomy. Mary in the magnificat, “My soul that magnify the Lord, my spirit doth rejoice in God our Saviour” (Luke 1:46-47). And so here is the first time that Paul uses the phrase or the term, “God our Saviour.”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에 근원을 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구원을 언급했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언급했습니다. 마리아의 송가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눅 1:46-47).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장 1절 상 반절 말씀,

hope. and Lord Jesus Christ, our hope (1:1);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God our Saviour, Jesus Christ, our hope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Unto Timothy, my own son in the faith: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Jesus Christ our Lord (1: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찌어다 (1:2).

Timothy lived in Lystra, a city that Paul visited i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It is thought that Paul perhaps stayed in the house of Timothy o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He knew his mother and grandmother. He knew how they had instructed Timothy in the word. He mentions Eunice and Lois. Timothy was just a very young boy in Paul's first journey to Lystra, but evidently at that time made a commitment of his life to Jesus Christ and always held Paul as sort of a hero. Fascinated by this man, he looked up to him.

디모데는 바울이 일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도시인 루스드라에 살았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일차 선교 여행 때, 아마도 디모데의 집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니스와 로이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일차 선교 여행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으며 바울은 항상 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매혹되었고 바울은 그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On Paul's second missionary journey, though Timothy was still very young, probably in his mid-teens, he at this time became a companion of Paul and journeyed with him in his missionary endeavors. And so he is listed in many of Paul's writings. He was sent by Paul to Thessalonica to discover the welfare of the church. He had visited many of these churches with Paul,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Paul sent him to Philippi with a letter to the Philippians and he said that he had no one who was like-minded as he was as Timothy. I mean, Timothy was just joined with Paul in heart and in spirit, in calling, in vision.

바울의 제 이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는 아직도 나이 어린 소년으로, 10대 중반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선교여행에 동반자가 되어 그의 사역을 위해 그와 함께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아 교회들을 돌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바울과 함께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으며 많은 교인들과도 친근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주어 빌립보 지방에 보냈을 때,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만큼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되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했으며,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And so now Paul is writing to him and he addresses him as his son in the faith. “My own son in the faith.” And so there was this special relationship that existed between Paul and Timothy, like that of a father and son. And I believe that Paul saw in Timothy a tremendous potential for one to carry on the ministry once Paul was taken, and so he poured his life into Timothy; he disciplined Timothy. And this is one of the two letters that he wrote to Timothy of instruction, as a father to his son. So, “Unto Timothy, my own son in the faith: Grace, mercy, and peace.”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마치 친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믿기엔 바울이 그가 떠난 후에라도 디모데가 그 사역을 이끌어갈 큰 잠재력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에게 쏟아 부어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쓴 두개의 편지 중 하나의 서두인데,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찌어다’ (1:2).

Now in most of Paul’s epistles, he says, “Grace and peace.” Two epistles he adds “mercy”, this one to Timothy and also his epistle to Titus, there is the addition of “merc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race and mercy; mercy is not getting what’s coming to us. God is merciful. The Bible says,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so high is God’s mercy towards those that fear him” (Psalm 103:11). God is very merciful. And though we deserve the judgment of God, God is merciful.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서신에서는 ‘긍휼’을 덧붙여 놓았는데 그러한 표현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긍휼이란, 우리가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지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이시지요.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 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 103:11).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게 하실만큼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And though I have no, I have no argument that Hollywood and that area of Los Angeles doesn't deserve the judgment, I believe it does deserve the judgment of God, but God is merciful. I think that God would be totally just in wiping out San Francisco, Hollywood, and a lot of these areas, but God is merciful. We don't get what we deserve. And of course, if I got what I deserved, God would wipe me out, too. So who am I to talk about San Francisco or Hollywood? God is merciful. He does not reward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나는 할리우드나 로스엔젤레스 같은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샌프란시스코 나 할리우드 같은 큰 도시들을 아주 짝 쓸어 버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기엔 너무나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뤄야 할 댓가를 공제 받은것입니다. 물론 내가 만일 당연히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없애 버리시겠지요. 샌프란시스코나 할리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부정한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Grace is a positive characteristic of God. Mercy is sort of a negative characteristic, in that you don't get what's coming to you. Grace is a positive characteristic; that is, getting what you don't deserve. I don't deserve all of the goodness of God. I don't deserve all of the blessings of God. I don't deserve all that God has done for me. But that's grace, God doing for me what I don't deserve; what I couldn't earn. What I don't and haven't merited. God just pouring out upon me the richness of His love and His goodness and His blessings; that's grace, and realizing that grace of God towards me, my spirit rests. And thus, I have the peace. So "Grace, mercy, and peace".

은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특성입니다. 긍휼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댓가를 받지 않게 하는, 좀 부정적인 면이라고 본다면,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모든 축복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루워 놓으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격이 없고 내가 벌어드릴수도 없고 장점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사랑의 부요 함과 선하심과 그의 축복을 그저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영혼이 쉬임을 얻게 하신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한것입니다.

As I besought thee to abide still at Ephesus, when I went into Macedonia, that you might charge some that they teach no other doctrine (1:3),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3)

So Paul was called of God to come over to Macedonia. Timothy was with him but Paul felt a necessity to send him back to Ephesus to instruct the church there, and though he was a young man, Paul encouraged him, "Don't let anybody

despise your youth; be an example unto the believer” (I Timothy 4:12). And so I sent you back to Ephesus that you might charge those that they not teach any other doctrine,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때 바울과 동행했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그저 젊은 청년에 불과했지만, 바울은 그를 격려하면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고 하였습니다 (딤후 4:12). 그리고 ‘내가 너를 에베소에 보내니 너는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권면하도록 하라’ 고 하였습니다.

Neither give heed to fables and endless genealogies, which only create questions, rather than godly edifying which is in faith. Now the end of the commandment Or the effect, the sum total of the commandments of God, is love out of a pure heart (1:4-5)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1:4-5)

Or the effect, the sum total of the commandments of God,
is love out of a pure heart (1:5),

결과,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요약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1:5),

A lawyer one day asked Jesus,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He sai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soul, mind, strength” (Matthew 22:37). So that’s what Paul is saying. Really the summation of the commandments is loving out of a pure heart. That’s what it’s all about. If I’m really following the commandments, that will be the effect, this loving out of a pure heart. How God does want us to just have this deep love for one another. That’s what, that’s the, if you want to sum up all of the commandments, it’s summed up in that; loving, loving God and loving one another. That’s what it’s all about. That’s what God desires of us. Loving with a pure heart, or a true faith, a good conscience, love.

어느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2:37)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계명을 요약하면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계명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계명을 요약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a good conscience, and faith unfeigned (1:5):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1:5);

What great characteristics to possess; loving from a pure heart, just a good conscience. Paul said I have a conscience void of offence towards God. And then faith that is true, unfeigned. Now some have turned away from this, Paul said.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것, 이 두가지를 소유하는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것 인지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양심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서 벗어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7절 말씀을 봅니다.

And they've turned aside to vain jangling; Desiring to be teachers of the law;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 nor the things that they affirm (1:6-7).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1:6-7).

Now Paul is warning against endless genealogies, questions that only create confusion or disputes. There's --there are honest questions and there are dishonest questions. There are some people who ask questions only because they want an argument; they don't want to know the truth. They have a position that they want to espouse, so they want to get you embroiled in an argument. And so they will ask a question, not really seeking an answer but seeking an argument. They want you to state your position so that they can then begin to attack your position; that I call a dishonest question. An honest question is the man who asks, desiring to know the answer. Now I personally do not have any time for dishonest questions. And I'll tell you, I got the gift of discernment when it comes to questions.

바울은 끝없는 족보와 혼란과 논쟁을 일으키는 질문들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솔직한 질문과 솔직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논쟁을 벌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이 옳다고 여기므로 우리로 하여금 논쟁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질문은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주장하는 바를 말하게 하여 여러분을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솔직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솔직한 질문이란, 묻는 이가 그 답을 절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솔직하지 않은 질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질문을 했을때,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것입니다.

Of course, I know that certain groups have certain questions. And when someone comes up and they have the stock questions that they ask, I know exactly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sometimes I treat them rather abruptly and people standing around said, "Oh, that poor brother wanted to know." I said he didn't want to know anything; he wanted to argue. I don't want to argue scripture. I don't think that anything is gained from arguing scripture, trading verses.

물론, 나는 그룹 마다 특이한 질문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이 묻고 싶은 주식(stock)에 관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질문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무뚝뚝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오, 그 가련한 친구가 알고 싶어 하던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시비 걸려고 한다고 말해줍니다. 거래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언쟁을 해보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And so Paul is saying avoid these things. Tell the people to avoid these fables, endless genealogies, questions that are designed. That isn't why --that isn't where it's at. Our purpose should be to build up one another, not to cut at one another, tear down one another, challenge one another; but the true purpose is to build up one another. And these people, he said, they desire to be teachers and they speak with great authority, but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 lot of times when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t's important that you speak with authority.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화나 끝없는 족보나 다툼을 위해 만들어진 질문들을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것이 왜 있어야할 곳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서로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일이며, 깎아 내리거나 도전하는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선생이 되려 하거나, 또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려는 사람들은 실상 자신들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면, 우리도 권위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I read of a minister who had his sermon all outlined, but then he had little notes of gestures that should be used at particular points in the sermon. And so at this particular point it says, Extend your arm outward, opening up your palm, you know, to the people, and so these vivid-type gestures. And he had all of his notes all the way down, how he was to gesture, where he was to look, when he was to smile and so forth, and the whole thing was all programmed out for him. Well, they do that. But down on the page it said, At this point yell like everything, because it's a weak point. And sometimes, you know, when our point is weak we got to yell it; we got to speak with authority.

내가 어떤 목회자의 설교 요약본을 본적이 있는데, 그의 원고에 설교중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몸짓을 해야 할지 표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라, 사람들에게 손바닥을 펼쳐서 생생한 표현을 하고, 그가 어디를 볼것이며 미소를 짓는것 등등의 모든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면의 제일 밑에는 이 시점에서 소리를 질러야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약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요지가 빈약하면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좀 권위 있게 강조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But he said they really desire to be teachers but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they don't know the things that they are affirming to be so. These people were again trying to bring the people back under the law. And so Paul said,

그러나 바울은 누차 말하기를 그들은 그저 선생이 되려고는 하나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We know that the law is good, if a man use it lawfully (1:8);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 인줄 우리는 아노라 (1:8);

8절 말씀이지요.

Don't have any argument with the law. But then Paul comes in and he said, 율법을 가지고는 어떤 논쟁도 하지 마십시오. 9절 말씀은 말하기를,

But we know this, the law was not made for a righteous man
(1:9)

알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1:9)

An interesting point. You see, a righteous man does not need any law. A man who lives by good principles doesn't need laws; you don't have to tell that man what he should do and shouldn't do. He does them because he is a righteous man; he is a principled man. The law is for unprincipled people, and there are a lot of those in the world. And thus we need laws to keep them in check.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며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기에 그것들을 지킵니다. 법이란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저지시킬 만한 법이 우리에게겐 필요한 것입니다.

In Romans, Paul said the law is not a terror to a good person. It's only a terror to the evil person (Romans 13:3). You shouldn't be terrified when you see a policeman unless you're a bank robber or something. You see, if you're guilty of violating the law, then the law becomes something that you're frightened of, something that you dislike. But if you're an honest, upright principled citizen, you appreciate the law. You appreciate those who are enforcing the law because they're making it possible for you to live in this area. And if it weren't for the law

and those who are enforcing the law, we would be living in an intolerable condition because there are those out there who need that kind of a bridle.

로마서에 보면, 선한 사람들에게겐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자들에게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롬 13:3). 여러분이 만약 은행강도나, 혹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관을 볼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법을 어겨서 죄가 있다면, 그 법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걸 싫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원칙을 따른다면, 오히려 법을 고맙게 여길것입니다.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까지도 고맙게 생각할 것임은, 그들이 이 지역에서 여러분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법이나 또 법 집행자가 없다면, 세상에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고로,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So you want to be taught the law, you want the law. Paul says, All this, I'll tell you who the law is for; it's not for righteous people. They don't need to be taught the law. They don't need to be put under the law.

그래서 여러분은 법이 필요로 하고 또 그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말하겠습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 아래 들어갈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but [the law is] for the lawless, the disobedient, the ungodly, the sinner, for unholy and profane people, for murderers of fathers and murderers of mothers, for manslayers, for whoremongers, for them that defile themselves with mankind [or for the homosexuals], for the menstealers, for liars, for perjured persons, and if there be anything that is contrary to sound doctrine (1:9-10);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1:9-10)

Those are the people who the law is for. So you want us to teach the law. Well, what problem do you have, brother? You see, the law isn't for righteous people. We don't have to be rehearsing the law if we live by righteous principles.

법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에게 법을 가르친다구. 형제여, 도대체 뭐가 문제요?” 다시 말하지만 법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원칙에 따라 산다면 구태여 법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According to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which was committed to my trust (1:11).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1:11).

Now Paul says rather than teaching and preaching the law, we are teaching and preaching the glorious gospel, the good news of God. The law is bad news for the people to whom it was sent because it is a restricting thing, a condemning thing; the lawless. But rather than preaching the law, we preach the “glorious good news, the gospel of the blessed God,” which, Paul said, “was committed to my trust.”

이제 바울은, 우리가 법을 가르치고 전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영광된 복음, 즉,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고 불법자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전파 하는것 보다는, 영광스럽고도 좋은 소식인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바울이 말한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봅시다

And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enabled me, and counted me faithful, putting me in the ministry (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이니 (1:12);

Now Paul says of the ministry that he was enabled by the Lord. God isn't really looking for ability, though so often when we are looking for someone to fill a position within the church or whatever, we get out the resumes and we look for the graduated Magna cum Laude and we're looking for the most talented individual. God doesn't. God looks for the most available individual and then He enables him to do the work that He would have done. And quite often, the choices of God are shocking to us. You know, it's sort of an interesting thing; he says God counted him faithful, put him in the ministry. And of course, a steward is required that he be faithful. So God's looking for someone who's available, someone who'd be faithful.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사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빈번히 교회안에서 어떤 위치나 무엇이든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이력서를 보고 우등생으로 졸업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찾지만 하나님은 능력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실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놓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사역을 맡기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 들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용한 일꾼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Years ago when we started Calvary Chapel, just eighteen and a-half years ago, from the very beginning it seems that God began to bless this group of people that had gathered together. It was definitely something that was ordained of God and born of the Spirit and born of prayer, and we began to have just an immediate move of God and God began to add people almost immediately. Of course, we started with about twenty-five the first Sunday. And before long we were running fifty. And within a year or so, we were running a hundred. And there were a lot of other small churches in Costa Mesa at that time, and they began to observe what God was doing at Calvary Chapel. And some of the ministers at that time publicly said to their congregations, "If God can do it for Chuck Smith He can do it for us." I liked that. I understood why it is that God chose me to encourage others. For if God can do it for me, He can do it for anybody. And He used that to encourage a lot of the pastors at that time.

수년 전, 그러니까 약 19년 전에, 우리가 갈보리 채플을 시작할때 부터 모였던 이 그룹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고 성령과 기도의 결과로 탄생한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나타났고 하나님이 즉시 사람들을 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번째 주일 예배는 약 25명으로 시작했지만 오래지 않아 50명이 되었고 일년 안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코스타 메사 에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갈보리 채플에서 하시는 일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길 "하나님이 척 스미스 목사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왜 못하시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좋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가능 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써 그 당시 하나님은 많은 교회의 목사들을 격려하셨습니다.

So Paul the apostle said that the Lord enabled me. He counted me faithful, He put me in the ministry. I'm thankful for this. He committed to my trust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He said,

바울 사도는 고백 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주셔서 그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은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 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For before I was a blasphemer I was a persecutor I was injurious (1: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이었으나 (1:13)

That he was; that is, he was a blasphemer against the church and against Jesus Christ. He stood by while Stephen was stoned, consenting to Stephen's death, encouraging those that were throwing the stones by holding their coats. And then he went down to Damascus from Jerusalem with letters authorizing him

to imprison those who were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on his way to Damascus, as he was breathing out murders and threats against the church is when the Lord got hold of his life. But “before I was a blasphemer, I was a persecutor,”

바울은 이전에 예수그리스와 그의 몸 된 교회를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겉옷에 돌을 담아와 그에게 던질 때 그를 죽이는 일에 뜻을 같이했던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격려했으며, 마침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동안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여 협박하고 죽일 생각에 거친 숨을 몰아 쉬며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바, 그는 분명, 훼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But I obtained mercy, because I did it ignorantly in unbelief. And the grace of our Lord was exceeding abundant with faith and love which is in Christ Jesus (1:13-14).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 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 하였도다 (1:13-14).

So Paul talks about his own ministry, his call into the ministry. An unlikely a candidate as you could ever hope to find. In fact, I thought that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f Paul the apostle were to have a resume written of him and sent to some of the churches that are seeking new pastors. I'm sure that the pulpit committee in reading his resume would say, "Hey, don't even bother finishing. We don't want that fellow." I've been thrown in prison several times. I've been beaten. I've been stoned. I've created riots. I have poor eyesight. I'm not much of a speaker. And yet God enabled him, called him, used him. Paul speaks of having received mercy. But then also, he received the grace of our Lord, exceeding abundant grace. Oh how glorious!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이 그 사역에 부르신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새 목사들을 구하는 어떤 교회에, 그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했드라면, 그것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청빈위원회에서 그의 이력서를 받아 읽어 본다면, “여보게, 읽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런 친구를 원치 않아” 라고 말했을겁니다. 그의 이력서에 그는 “나는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사람들에게 매도 맞았으며, 돌로 맞고, 난동을 일으켰으며, 내 눈은 어둡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지극히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chief.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15)

Now he talked about the glorious gospel that was entrusted to him and this is the gospel. This is the faithful saying, It's a true saying. It's worthy that every man should accept it. What is that true and faithful saying that everyone should accept? This: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 들여야만 하는 참된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That's the gospel. That's the good new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First of all, all men are sinners. Therefore, He came to save all men.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Because all men are sinners, all then were dead in their trespasses and sins.

그것은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롬3:23).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aul, in writing to the church in Ephesus said, "And you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where 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at even now is working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among whom you all of you one time lived" (Ephesians 2:1-3). No exception; we were all sinners. We were all alienated from God as the result of our sin. Our lives were wasted, useless, lost. The glorious Gospel: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Jesus said I'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And so this glorious Gospel entrusted to Paul is just so simpl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셨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1-3).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 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것 이었으며 길을 잃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10). 바울에게 말기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너무나 바르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Jesus said to Nicodemus, “I did no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And he who believes in me is not condemned: but he who doesn’t believe in m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n’t believed i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the men will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ir deeds are evil and the light makes manifest” (John 3:17-19).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한복음 3:17-19).

Jesus does not stand as your accuser. He stands there as your Savior. Jesus did not make accusations against the sinner. He only gave invitations,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If you’re a sinner, you don’t need to fear Jesus. He’s reaching out His arms to you. He’s saying to you, Come unto me, I will give you peace.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hope. I will give you life. I came to save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참소하는 고소인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는 죄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8). 만일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결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주리라. 나는 너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You see, so many times we see Jesus in the opposite posture. We see Him there condemning us, pointing the finger. Oh, I don’t want to be around Him.

I feel so guilty, you know. I've done so many awful things, you know, and I see Jesus as a Judge and as One condemning me; but not so. He said, I didn't come to condemn.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랑 반대적인 입장에서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를 비난하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손가락질도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사실. 저는 그 분 가까이에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하게 저를 괴롭히거든요.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나쁜 짓을 아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를 정죄하는 엄한 재판장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oman taken in the very act of adultery brought to Jesus; and they said, "Our law says we're to stone her. What do You say?" Jesus said, "Well, I say whoever among you hasn't committed a sin, let him throw the first stone." Then as He wrote on the ground, and I am certain, though the Bible doesn't say it, He began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there on the dirt, I believe He began to write and enumerate the sins that these people were guilty of. Probably putting their name. Levi, you know, I'd start writing out his sin. And Levi says, Oh, I think I better go, my wife's you know expecting me home. And so one by one He wrote their names, began to write their sins. And one by one they began to leave from the oldest to the youngest until there was nobody left. And Jesus stood up and He looked up at the woman, He said, "What happened to your accusers?" And she said, "Well, Lord, I guess I don't have any." He said, "I don't condemn you, either. Go your way, sin no more" (John 8:2-11).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우리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면 좋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글에 관하여는 성경상에서 알려 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소견에는 사람들이 범한 죄를 하나 둘 열거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름까지도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위. 너, 잘 봐라 내가 이제 네 죄를 써 내려 갈 거다” 그럼 레위는 생각하기를 “아이쿠, 빨리 가는 게 낫겠구나. 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제 집사람이 빨리 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한 사람씩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죄를 계속 써 내려 갑니다. 그러자, 늙은 이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 슬그머니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물으셨죠.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2-11).

Oh what good news.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not to condemn them. We didn't need that; we were already condemned. What we did need was a Savior. When I am in need, when I am down, when I am out, I don't need someone to come and tell me how horrible a person I am and how awful I am. I need someone that will take me by the hand and lift me out, someone that

will help me. And that's exactly what --Jesus doesn't come along to chastise you and to castigate you for all the evil that you've done; he's come along to take you by the hand and lift you. This is the Gospel. This is the good new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nd Paul added,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를 당했으니 또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구세주입니다. 때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낙심하거나 낙오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지독한 사람인지 내게 확인시켜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손을 잡고 나를 도와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야 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악함을 징계하거나 징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바울이 덧붙여 말합니다.

of whom I am chief (1:15).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Now I'm certain that he could get an argument on that point. But again, Paul did have a lot of indictments against him, as far as Jesus Christ was concerned. For he was a blasphemer of Jesus Christ, he was a persecutor of the church, he had injured many who ha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But he said,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는 그 자신을 기소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던 자였고 교회를 핍박했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Howbeit for this cause I obtained mercy, that in me first Jesus Christ might show forth all longsuffering, for a pattern to them which should hereafter believe on him to everlasting life (1:16).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이니라 (1:16).

In other words, the Lord chose the most unlikely candidate and saved him. I mean, if you were living in those days and you saw this young, zealous Paul. And you saw how he hated the church and hated Christianity, hated all of the Christians. And if you heard him, as he would blaspheme the Christians and just, you know, he was just so filled with venom and all against Christianity and those

that were calling on the name of Jesus. You'd say, man, that is the last person in the world that will ever be saved. I mean, there's no hope for that guy, you know. And so Paul says, God chose me to show how longsuffering and merciful He is in order that anybody else after me might be encouraged. Hey, God is willing to reach to the lowest. Jesus Christ will forgive the worst and it should be an encouragement. God set the pattern by reaching down to the bottom and lifting me out and making me His representative, His apostle, His ambassador."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젊고 유능한, 열성적인 바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미워했고 또 그리스도 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훼방한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가 서슬이 퍼래진 모습으로 기독교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금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구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누구든지, 내 뒤에 올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오래 참으셨으며 얼마나 긍휼이 여기셨는가를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 주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자에게까지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악한자라도 기꺼이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밑바닥까지 낮추시며 모범을 보이셨고, 또 나를 들어 올리사 그의 사도로 그의 대사로, 또 그의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

So Paul marveled, constantly marveled that God should call him to minister the truth of Jesus Christ, after how he had attempted to destroy this very truth that he was now proclaiming.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를 얼마전까지 악착같이 거스리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Now unto the King eternal (1:17),

만세의 왕께 (1:17),

Now Paul when he's thinking about this he's just carried off into ecstasy and so he has to throw in this little benediction. Paul does this every once in a while, he just gets so excited he has just to throw in a little bit of praise-kind-of-a-thing, you know. And I love it. I --it happens to me. I get so excited with the goodness of God and the grace of God and the blessing of God, I just every

once in a while, I have to throw in a little, "Oh, praise God," you know and little benediction-kind-of-a-thing. So,

바울이 깊은 예배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감동에 이끌릴 때면, 어느덧 찬미의 기도가 그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일은 내게도 종종 생기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한없는 축복을 생각하다보면 흥분에 겨워 찬미의 말이 저절로 나의 입술에서 흘러 나오게 되지요.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

un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and honor for ever and ever. Amen (1:17).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1:17).

So beautiful, little benediction here.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wise God, be honour and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We are told to give glory unto God. Glory and honour and power ascribe unto our God.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축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This charge [Paul said] I commit unto thee, son Timothy, according to the prophecies which went before on thee, that you by them might war a good warfare; holding faith, and a good conscience; which some having put away concerning faith have made shipwreck: Of whom is Hymenaeus and Alexander; whom I have delivered unto Satan, that they may learn not to blaspheme (1:18-20).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 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So now Paul is charging Timothy and charging him “according to the prophecies, which went before on thee.” Now, many times it would seem in the early church they were directed in their ministry by prophecies, by the word of prophecy.

이제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행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 교회들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예언의 말씀들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In the book of Acts chapter thirteen, “Now the Holy Spirit said, Separate unto me Paul and Barnabas for the ministry wherein I have called them. And so they fasted and prayed, laid hands on them, and the Spirit sent them forth” (Acts 13:2-3). But how did the Spirit speak saying, "Separate unto me Paul and Barnabas?" Here they were gathered together praying, no doubt talking about the need of getting the Gospel into the world that had not heard, and the Spirit said, "Separate to me Paul and Barnabas for the ministry wherein I've called them." How did He say that? I believe that it was spoken through the word of prophecy. Someone in the group was anointed by the Spirit and prophetically declared this. And thus the Holy Spirit through prophecy said, "Separate unto me Paul and Barnabas". And the gift of prophecy was used this way in the early church.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사도행전 13:2-3).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세우라”고 말씀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들은 말씀을 들어 본적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믿기에 그것은 아마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 중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기록하신 성령께서 예언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있어 중요하게 쓰여졌습니다.

When Paul was in Caesarea on his way back to Jerusalem, staying at the house of Philip; Agabus, a certain prophet in the church of Jerusalem came down and took Paul's girdle and tied himself up with it. And said, “So is the person who owns this girdle to be tied when he gets to Jerusalem” (Acts 21:11). He prophesied of what was going to take place when Paul got to Jerusalem. They were directed.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가이사랴지방에 있던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1:11).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And so Paul in another place in writing to Timothy said, “Now stir up the gifts that are in you, that were given unto you by the laying on of hands and by prophecy” (I Timothy 4:14). So oftentimes when they would lay hands upon people and pray for them, there would be prophecies that would come forth, in which the Lord would often show the person the direction of their ministry.

이제 바울은 다른 장소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불러 일으켜라”(디모데 전서 4:14). 당시에, 그들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면, 종종 위로부터 임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 주시곤 했습니다.

Now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limited to the New Testament. As I said, I have not seen a vision or had a dream that I felt was spiritually significant. I have had prophecies that were directed to me concerning my ministry when hands were laid upon me and we were in prayer together. And this is a practice of the early church, and it is something that is valid today.

사실 이런 일은 신약성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말했듯이, 내가 어떤 영적인 암시가 있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이 임함으로 나의 사역에 관계된 특별한 지시를 전해받곤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것이지만 분명히 오늘날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Years ago when I came to a very discouraging point in my ministry, having been in the ministry for almost seventeen years, not really seeing any effective results, discouraged really to the point of leaving the ministry because of the ineffectiveness of my ministry; we were in prayer together and a group of friends waiting upon the Lord. We put a chair out in the middle and we began to pray for people. And finally I sat in the chair and they prayed for me, and prophecy, the word of prophecy came. And God began to tell of the ministry that He was going to give to me and of the way that the church would be blessed and the way the church would grow. It seemed at that time like it was so totally unlikely. That time the Lord actually said that He was going to give me a new name, which meant “shepherd”, because He was going to make me the shepherd of many flock.

수년 전,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한지 약 17년 정도 되던 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바람직한 결과는 커녕 아무런 열매가 없는 터라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지 어쩔지 고민해야 할 만큼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한 그룹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지요. 우리는 가운데에 의자 하나를 놓고 차례로 한 사람씩 앉게 한 다음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있지 않아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그가 내게 맡기시고자 하는 사역과 교회에 임할 축복,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이루워지리라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길, “내게 새 이름을 주겠다”하셨는데, 그 이름은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은 양 무리의 목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Before I came down here, a group of people were in prayer, as to whether or not I should come down. They had asked me to come down and to take over here at Calvary Chapel and they were in prayer in regards to it. And the Lord spoke to them through prophecy and said that I was going to be coming down, that the Lord was going to bless the church abundantly. That we were going to -- the church would be outgrowing that facility. We would be moving to a new facility on the bluff overlooking the bay, and that God would continue to bless until the church would be known around the world. There would be a national radio ministry, and God laid out so many things that have since come to pass through the word of prophecy.

여기 오기 전에도, 한 기도 모임에서 나는, 내가 여기 와야 할지 혹은 다른 뜻이 있는지에 관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여기 와서 갈보리 채플을 맡아 주기를 청했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예언하게 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오게 되리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넘치게 축복하실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해 가기 시작하였는데 장소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그마한 곳의 새로운 시설로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방송 선교를 위한 라디오 방송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 말씀 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많은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So Paul is talking to Timothy about that experience he had, when hands were laid upon him by the presbytery, and the word of prophecy was given. And gifts were given unto Timothy, and the calling of God upon his life for the ministry that he was to fulfill. So I “charge and commit unto you, son Timothy, according to the prophecies that went before on thee.” Remember those prophecies that were given. “That you by them might war a good warfare.” Hang in there, Timothy. “Holding the faith, and a good conscience; now some have put away the faith and they’ve become shipwrecked:” And a couple of them he names, “Hymenaeus and Alexander;” and he said, “I’ve turned them over to Satan, that they may learn not to blaspheme.”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부여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은사를 받은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 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예언으로 명한것을 기억하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하며 그리고 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또 계속 말하기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Now just what he means by that, I don't know, except Satan does desire to destroy us. And you remember when the sons of God were presenting themselves to God and Satan also came with them, and God said to Satan, Hey, where have you been? And he said, Oh, I've been going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up and down in it. And God said, Well,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Good man. And he said, Oh yeah, but you've put a hedge around that guy. I can't get to him. So in turning them over to Satan, it could be that they are no longer protected by the hedge that God puts around his children. And I'll tell you, if you're not protected by God against Satan, you're just an open mark and I, I really --my heart goes out to you.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사단이야말로 우리를 파괴 하려는 자임을 알게 하려는 뜻입니다. 다 같이 욱기 1장 말씀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또한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어디에 있다 왔느냐?” 하시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 네가 내 종 욱을 잘 눈여겨 보았느냐? 착한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시니, 사단은 “오,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집과 소유물을 산울로 다 둘러 지켜 주시니 그렇지요.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면 하나님이 두르신 산울에 의해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치 사단의 눈앞에 그의 먹이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I thank God for that protection that He places around us, His children. That hedge. And perhaps Paul just said, Lord, take away the hedge. They want to dabble with it, let them get burned so that they'll learn not to dabble.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것은 그가 그의 자녀 된 우리를 둘러 감싸시며 보호해 주심을 인함입니다. 산울타리로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산 울을 그냥 거둬 주세요. 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 안에서 저렇게 훼방을 놓고 장난을 치는데, 그러면 혼이 난다는 걸 좀 가르쳐 주게 따끔한 맛을 좀 보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Chapter 2

Now I exhort [Paul said] therefore, that, first of all,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and the giving of thanks, be made for all men For kings, and for those that are in authority;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odliness and honesty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2:1,2).

So we are exhorted to pray for each other, to intercede. "Supplications, intercessions, the giving of thanks." And then,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hat we pray for our leaders in government. I believe that we should be holding our president up in prayer. What an awesome responsibility that man has. I personally cannot understand why anybody would want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mean, that has to be one thankless job. He needs prayer. We need to pray for those who si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e need to pray for the congressmen, the senators national, statewide.

우리는 서로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감사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 나는 우리가 기도로써 우리의 대통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실 난 개인적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좌하는 관계 부처 장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상원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모든 주지사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Now the purpose of the prayers is that we might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odliness and honesty. The real purpose of government is not to tax people. The real purpose of government is to preserve the good. That's the purpose of government, the preservation of good. And all laws should be designed for the preservation of good because there are these evil influences and powers and government is actually ordain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good. Keeping out the evil. And when a government no longer is fulfilling that function, the evil that they allow will ultimately destroy that government.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목적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평안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이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며 이야 말로 정부가 세워진 참된 목적인 것이지요. 정부가 선한것을 보존하기위해 세워진 것이므로 모든 법률은 선을 보존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향과 악한 세력을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부가 악을 막는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정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Study your history books and you will see it is tru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Most governments began with the high ideal of the preservation of good, but in time, the corrupt forces moved in. The laws were liberalized to where good was no longer being preserved but evil was being allowed, being tolerated and then being protected by the laws. And the next thing was that the evil then overthrew the government.

여러분이 역사책들을 공부해 보면 그 모든 과정 과정들이 거둬서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선을 보존하고자 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패한 세력이 침투해 들어간 것이지요. 법률들은 자유화되었고 선은 더 이상 법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도록 되는가 하면, 악은 허용되고 묵인되며 오히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악한 세력이 정부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We are at that stage her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vil is now being protected. It is being mandated by law; protection of the evil being mandated by our laws. And the next state is the fall of that government. So we need to pray. Pray for the kings, those that are ruling over us.

이제 미국은 악이 보호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보호하는것이 우리의 법들로 인해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 정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For this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ur;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2:3-4).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 (2:3-4).

What an opposite picture many people have of God who looks at Him as One who wants to damn everybody. In fact, they go around asking Him to. And so people get in their minds and associate in their minds God judging and condemning everyone. How opposite that is to the truth of God's nature, who would have everyone to be saved.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길, 그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발 그들좀 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으로만 연상하지만 그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Listen to God crying unto the people through Ezekiel the prophet as he said, "Turn now, turn now, for why will ye die, saith the Lord. Behold, I hav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Ezekiel 33:11).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11).

Peter said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 Peter 3:9).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벧후 3:9).

Here Paul tells us that God desires that all men be saved; the God of salvation who desires that all men should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what is the truth?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2:5);

하나님은 한 분 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5); 2장 5절 말씀입니다

When Job was having all of his afflictions: He lost his possessions. He lost his children. He lost his health, lying in the misery covered with boils, lying in the ashes; his wife looking at him in this miserable state said, Honey, why don't you just curse God and die? Get it over with. I can't stand to see you suffer like this anymore.

욥이 모든 재앙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잃었고, 그의 자녀들을 잃었으며,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재 가운데 누워 있을때, 그가 가혹한 상태에 있는것을 본 그의 아내는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끝장내세요. 당신이 이렇게 고통 당하는 꼴을 더 이상볼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His friends came to comfort him, but rather than being a comfort, they became accusers, condemners. One of his friends, Eliphaz, said, Why don't you just get right with God and everything will be okay? He said, Thanks a lot, Pal. What do you mean; get right with God? Who am I that I could stand before God and justify my case? He said, I go out, I look up at the stars and I realize how vast and great God is. And here am I, just a really nothing here on this planet. God is so great and I am so small. I try to find Him, I look here, I look there; I look around. I know He's around here but I don't see Him. And how can I stand before God to to declare my innocence or to justify my case? With God so vast and I so nothing, there is no daysman between us who can lay his hand on us both.

그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 왔지만, 위로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은 욥을 고소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것 아닌가?’하며 은근히 욥을 책망하자 욥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대단히 고맙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경우를 정당화 한단 말인가? 내가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 보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위대하시며 나는 정말 이구상에 있는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것을 깨닫게 되네.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나는 지극히 작으며 내가 그분을 찾으려고 애를써서 여기도 저기도 찾아보고 온 사방을 둘러 보아도 그분을 뵈 수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를 정당화 할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방대하시고 나는 지극히 작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손을 잡아줄 중개자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찾을수가 없구나.

Job saw the problem of man trying to communicate with God or trying to touch God. It's the trying to bridge over the great gulf between infinity and the finite. The only way Job can see it happening is that there be a daysman between who can touch us both. And in answer to the cry of Job, Paul said,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Through Jesus Christ, the cry of Job is answered. He is the daysman who can touch God, and can touch man. For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n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And he became flesh and he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One Go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육은 인간이 하나님과 의사소통 하려고 하거나 그에게 접촉하려고 할때 생기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생각한 단 한가지 가능성은 하나님과 육 사이를 연결할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사이의 커다란 해협을 연결해 주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접촉하실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14). 그 분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중보 하시는 유일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Now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if you want to come to God, don't come to me. I'm not a mediator between God and you. If you want to come to God, you must go to Jesus Christ. He alone is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You can't go to another man. You can't go to the saints. You can't go to Mary. There is only one mediator, the man Christ Jesus. And He is the only One that can bring you in touch with God.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A very radical, exclusive claim, "One God, one mediator, the man Christ Jesus." But thank God, there is a mediator.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됩니다. 어떤 성자에게나 마리아에게도 가선 안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증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이십니다. 그 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요 14:6) 라고 말합니다.”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증보자, 그리스도 예수” 아주 극단적이며, 배타적인 주장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증보자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Oh how thankful I am I can come to God. Jesus stands there and puts His hand upon God but He also reaches down and puts His hand upon me, and He brings me in touch with God. I touch God through Him. For he was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and yet he came in the likeness of man that he might touch me. And so God touched man through Jesus and in turn, man can touch God through Jesus; “One God, one mediator”.

내가 하나님께 나아 올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의 한 손을 하나님께, 또 다른 한 손은 나에게 닿도록 뻗치시고, 나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나는 그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와 접촉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교통하실 수 있듯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증보자도 한분이십니다.

Who gave himself a ransom for all, to be testified in due time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2:6)

You see, we were all sinners. And as a sinner, I was totally unable to redeem myself. Nothing I could do to save myself. Nothing I could do to make myself righteous. There is nothing that I could do that could atone for my past guilt.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할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의롭게 되기위해 할수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w you might say that there are high sinners and there are low sinners. There are good sinners and there are bad sinners, but you're all sinners. And really, it doesn't matter if you're a good sinner or a bad sinner. None of us can redeem ourselves. But Jesus gave himself as the ransom; He died for us and in our place.

그럼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질이 아주 높은 사람과 죄질이 좀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좀 나은 범죄자와 아주

나쁜 범죄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좀 선한 사람이던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던 상관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Whereunto [Paul said] I am ordained a preacher, and an apostle, (and I am telling you the truth in Christ, I wouldn't lie to you;) I am a teacher of the Gentiles in faith and in truth (2: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7).

It is to proclaim this testimony of Jesus Christ that I've been called as an apostle, as a preacher. And I'm speaking the truth. I'm a teacher of these things.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며 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다음은, 2장 8절 말씀.

I will therefore that men pray every 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2:8)

Now this is one posture in prayer, lifting up your hands in prayer. And there are times when I pray I lift up my hands unto God. I do that more when I am praising the Lord than I do when I am making requests. Some people find it difficult to lift their hands unto the Lord and if you do, there's no problem. God understands that you've got a hang up and He'll listen to you just as much.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position of the body in prayer. Which position is most effective?

기도 중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기도의 한 자세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무엇을 간구할 때 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 손을 올리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만일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잘 아셔서 여러분의 말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대해, 사실 여러 말들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You know when I was a little kid in Sunday school, they used to always say, Now everyone bow your heads, fold your hands and close your eyes. We're going to pray. So I really thought that you couldn't pray unless your eyes were closed. And a lot of times I'd peek to see who was praying. And I'd say, He didn't pray, his eyes were open. Of course, they'd always nail me and they say how did you know? But I assume that because their eyes were open, they weren't praying.

But I found that I can pray with my eyes open, but I found that it's better if I close them because if my eyes are open, then I'm oftentimes distracted by what I see and my mind is taken off of my prayer. I realize now that the teachers told us to fold our hands so we wouldn't be poking the one next to us when their eyes were closed. And so I can see the wisdom in telling the children to bow your heads, close your eyes, fold your hands. And I can understand the wisdom in that. But yet you don't have to have that position to pray.

내가 어릴 적 주일 학교에 다닐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기도할 때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손은 모으고, 눈을 꼭 감은 채로 “다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눈을 감지 않으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중에 나는 눈을 뜨고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하는지 두루 쳐다 봅니다. 그리고나서 ‘야,, 누구누구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기도도 안하고 있더라’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되려 내게 따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지?”

나는 단지 사람들의 눈이 떠져 있는 모습만 보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눈을 뜨고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기기도 하고 또 주의가 산만해져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 정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기도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실 때, 두 손을 모으라는 것이 그 손으로, 기도하고 있는 옆사람을 쿡쿡 찌르라는 뜻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Some people say well, you got to be kneeling. Paul said, “Before whom I bow my knee” (Ephesians 3:14). And kneeling is a good posture for prayer. It sort of says something. It was a position that was more popular probably during the time when the King James Bible was translated. When they would come before the king and they would kneel before the king; it was just the posture that a person would take which did signify a posture of surrender and honor to the king. And so I'm coming before the King of the universe, and so I can see where kneeling is a good posture that might express this honor and all that I wish to give to Him. But I also found that if I kneel by the side of my bed and put my hand, my face in my hands there at the bed and I start to pray, I find that quite often I can fall asleep in that comfortable position. Good position to pray in, but it's also a fairly good position to sleep in if you're tired enough.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기록하기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에베소서3:15)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하는데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것은 옛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던 시대에 널리 유행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왕을 알현할 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자세는 한 사람이 왕에게 항복하며 존귀를 돌린다는것을 나타내기 위한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내가 그 분에게 드리고 싶은 존귀와 영광, 이 모든것들을 표시하는 아주 좋은 자세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깨닫은 것은, 만일 내가, 침대 가장자리에 내려 앉아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침대에 놓고, 내 얼굴을 손에 대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편안한 자세에서는 종종 금방 잠이 들게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기에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척 피곤할 때, 잠들기에 아주 쉬운 자세이기도 합니다.

And so I have found that it helps me many times if I walk while I pray. I find that it's good if I will pray aloud because if I just pray in my heart or in my mind, I find that my mind has a tendency to wander over on other subjects. And pretty soon, I'm back in Kauai catching that wave that I missed. I got the extra kick this time and I really got a good slide. And so in just praying in my mind, my mind has a tendency to wander from the prayer. So I find that by praying aloud, by articulating my needs, my requests, that it does keep my mind from roaming off in other subjects. And so I love to just take a walk and talk with the Lord. It's very enjoyable to me to just take a walk and just talk to the Lord and just pour out my heart and my soul to Him as we're just sort of walking together.

또 나는 산책하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깨닫게 되었는데, 특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싶을 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생각이 다른 주제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은 어느새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파도타는것에 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파도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살을 차는 숨씨도 아주 그만이구요. 그렇게 신이 나다가 다시 기도로 생각이 얼른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을 소리를 내어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이 헤메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산책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과 영혼을 그에게 쏟아놓는 것은 내게는 대단히 유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I have discovered that it isn't the position of my body that's important to prayer but the position of my heart. That's what God is looking at. He's not paying any attention whether or not my hands are lifted or I'm kneeling or my head is bowed and hands folded and eyes closed. What's the attitude of my heart, the position of my heart? That's what's important in prayer. So men, here's for you, "Pray every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기도 생활에 관해 내가 발견한 것은, 중요한 것이 내 몸의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손이 올라가 있는지, 무릎을 꿇고 있는지, 또 내 머리가 조아리고 있는지, 손은 모았는지 게다가 눈은 감았는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Women, [well] adorn yourselves in modest apparel (2: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2:9),

There are fashions and styles that are designed to be sexually provocative. As a Christian woman, I do not believe that you should be wearing such styles. Jesus said “if a man looks upon a woman and desires her in his mind, he has committed adultery” (Matthew 5:28). And thus to wear a style of clothing that would so display your body as to create a lust or desire, you’re causing some man to sin. You don’t want to do that. Modest apparel.

요즘 옷들은 너무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스타일이나 유행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라면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 5:28)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 보이려고 이런 종류의 옷을 걸치는 것은 음욕과 정욕을 일으켜 남자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정함을 갖추십시오.

Now I don’t believe that you, you know, should go to the other extreme to wear your apparel, you know, that immediately marks you as some kind of a weirdo. You know I think that there is just a lot of modest, beautiful style and I don’t think that this in any way should inhibit your shopping. You can plan, spend plenty of money on clothes that are not of the provocative nature. And stay out of Frederick’s. “Women adorn themselves in modest apparel,”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옷을 입어 너무 별난 사람으로 점찍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 충분히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쇼핑을 막으려고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옷들을 사기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한 옷들만 전문으로 하는 프레데릭 같은 곳에 가면 안되지요. “여자는 아담한 옷을 입기를 원하노라.”

with shamefacedness and sobriety; not with broided hair, or gold, or pearls, or costly array (2:9);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2:9);

Now this certainly has to be read in the context of the day in which Paul was writing and of the styles in those days, and styles change from time to time. I think that the best guide is just moderation. I think that as a Christian I should not seek to be ostentatious in my dress. And I think that this goes for the men as well as the women. Now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etty wild hairstyles, I’ve seen them on TV that you know are extreme. I don’t think that we ought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to remain fashionable with the latest hairstyles and --or some of them are not the latest hairstyles. They go back a ways but they’re very fancy indeed and costly.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당시의 스타일을 강조하지만 스타일이란 시간이 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지침서는 중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의 의복이 사치나 허영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매들이나 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는 헤어 스타일을 대단하게 장식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그 스타일은 말하자면 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최신 유행을 따르느라 머리 모양을 바꾸려고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것은 최신 유행과는 진짜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렇게 구식이면서도 대단히 사치스럽고 비싼 것이지요.

I don't believe in a lot of fancy jewelry myself. I think that there is a better way to spend our money. Met a man today who had a very beautiful Rolls Royce. No doubt he was desperate for transportation. No, he was trying to say something; gold chain with a big gold pendant with diamonds in it, gold, wide gold wristwatch with his name in diamonds on it. Of course he had his name on the license plate of his Rolls Royce. He's trying to say something. I sort of felt sorry for him to be lacking in self-confidence, to have to say it with jewelry or something else. You know, I'm successful, I've got it made. I'm in the One Million Club. It's sort of sad indeed. So moderation.

여러가지 비싼 귀금속으로 나를 치장하는것 보다, 돈을 더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은 세상에 몇 대 되지도 않는 아주 아름다운 롤스 로이스 차를 몰고 왔습니다. 물론 그사람도 교통수단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큰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팔목에는 자기 이름을 다이아몬드로 새긴 넓적한 금팔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롤스 로이스 차에는 그의 이름을 쓴 면허판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어 보석이나 다른것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과시하려는것은 '나는 성공했습니다. 보세요 다 내가 이룬 것들입니다. 나는 백만장자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용을 지킬 줄 알아야겠습니다.

(that which becomes women who are professing godliness)

(2: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2:10)

That's how you ought to dress so that it doesn't take away from that beauty that glows upon a woman who is walking with Jesus Christ. You know there are times in a woman's life when she glows with beauty. I think that there is just something really about pregnancy. I think that women rarely are as beautiful as they are when they are pregnant in sort of the last stages. There seems to be just sort of a glow. There's just something beautiful about it. And when a woman is walking with the Lord, there's just that glow of beauty about their lives. There's just that special little touch of God upon them, which I'll tell you, Loreal or none of the rest can duplicate. I don't care how much you spend. That beauty of the countenance of a woman who is walking with the Lord is something that is to be desired. It's glorious to behold.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인이라면 빛나는 아름다움이 가려지지 않도록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삶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기를 가진 임신부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도 마지막 산월이 찬 여성의 모습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너무 눈부시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시고 섬세한 돌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화장품으로도 연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를 가꾸기 위해 얼마를 소비하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자의 아름다운 자태야 말로 선망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보기만해도 영광된 모습입니다.

Now Paul brings up a very controversial issue here. *[He said]*, Let the woman learn in silence with all subjection. For I do not allow a woman to teach, nor to usurp authority over the man, but to be in silence. (2:11-12).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 하 노니 오직 조용할찌니라 (2:11-12).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I wish Paul had not written. Paul is, notice, prohibiting the woman to teach or to usurp authority over the man, and that would be in spiritual things and in spiritual issues. Yet in writing to Titus, Paul said let the older women teach the younger women. There is a place of teaching for women, the teaching of the younger women: how to love their husbands, how to keep their homes and to talk in godliness and righteousness. And my wife has taken that as her calling here at Calvary to teach the younger women. Having raised now the family and being freed from the obligation of having the children at home, she's now free to share with the younger women those secrets that she has learned in walking with God and seeking to raise a godly family.

바울이 쓰지 않았더라면 좋을뻔 했다고 내가 느끼는 부분들이 몇개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일들과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나이든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을 위한 가르침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히 젊은 여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남편을 사랑하는 법과 그들의 가정을 지키는 법, 그리고 경건하며 바른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내 아내의 부르심은 이 곳 갈보리 채플에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 기르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이제 그 일에서 놓여나 나의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운 지혜들과 비법들을 나이 어린 여성들과 자유롭게 나누고 있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Paul mentions to Timothy how he had been taught in the Scriptures by his mother and his grandmother. And so the teaching of the children was larg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s. The only thing that is prohibited here is the teaching of men and usurping authority over them in spiritual things. That's the only thing that was being prohibited here by Paul. He is not prohibiting a woman sharing with men. Paul in writing to the Corinthians mentions the women praying or prophesying in a public assembly and he doesn't come down on them for that. He doesn't say that that's prohibited. And "he that prophesies speaks to the church for edification, for comfort, for exhortation" (I Corinthians 14:3), and I see these as areas where women can minister effectively.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를 통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주로 어머니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지된 단 한가지 '남자를 다스리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유일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가 남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회중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과 예언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을 했으나 서로 나누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고린도 전서 14:3). 나는 이것들이야말로 여성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In fact, I think that they really are most of them tremendous exhorters, especially if they've been married. We had one little woman in Huntington Beach who had a marvelous gift of exhortation. A little grandmotherly woman, but she could stand up and say, Now you know, life isn't always easy. We face a lot of trials but the Lord is on the throne. And so often we forget that God is on the throne and we must remember that. And she could just start exhorting, and man, you'd feel like going out and conquering the world. You know, I'm not afraid of anything. God is on my side. God is ruling. And she had a beautiful gift of exhortation. Just the area of teaching or usurping authority over the man is the only thing that Paul comes against here. And so let's be careful not to broaden out from what Paul has said.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들 중 몇몇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리더들입니다. 헌팅턴 비치 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조그마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정말 놀라운 권면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할머니이지만, 이 자매님이 어느날 일어서더니, "아시다시피,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지요. 정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형제들이여, 세상을 향해 뛰어 정복하세요. 내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자매님에게는 아름다운 권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나 권위를 넘어서 형제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울이 금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합시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Adam was first formed, and then Eve (2: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2:13).

The man was made first than the woman.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4,15절 말씀.

And Adam was not deceived, but the woman being deceived was the one that was deceived. Notwithstanding she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the faith and love and holiness with sobriety (2:14-15).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 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2:14-15).

Now Paul points out the fact that Satan came and deceived Eve. The suggestion is that women are mo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in spiritual things than are men. That's the suggestion that is made. It is interesting that many of the cults have been headed up by women. It is interesting if you'll look in the paper at the advertisements for the religious science churches and the advertisements for the theosophy and so forth, that so often women are the ones that are teaching in these off-branch kind of cults.

여기서 바울은 사탄이 와서 이브를 속였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속임을 당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를 한가지 들자면, 많은 이단 종파가 여성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종교 과학 교회를 선전하는 문구나 또는 신접에 대한 광고를 잘 살펴보면 그 이단 지파에서 이 주류에서 벗어난 이단에 관한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대부분 여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n the parables of the church, the kingdom parables in Matthew's gospel, a woman hid three, or put the leaven in the three loaves. In the church that we'll be covering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church of Thyatira, it was the woman Jezebel who the church had allowed to teach and to bring them into this idolatry. So a woman's place is not that of a teacher or the usurper of authority over men in these spiritual matters.

교회에 대한 비유로써,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의 비유를 보면,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살펴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 이란 여자는, 교회가 그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허용함으로, 잘못된 교리로 많은 이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위치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Now Paul said,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Notwithstanding she shall be saved (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략) 구원을 얻게 되리라’(2:15),

The word there is preserved in childbearing. One of the greatest fears of a woman in those days when she became pregnant is that of death during the birth of the child, for there was a very high rate of death of the mother in childbirth. And thus there was always a mixed feeling when a woman realized that she was pregnant. There was that feeling of joy and exultation; we're going to have a baby, but there was that underlying fear, I wonder if I will survive the birth of the child, because so many died in childbirth because of their limited medical knowledge and facilities.

여기 이 단어는 ‘아이를 출산하다’에 쓰이는 말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 중의 하나는 아이를 낳는 동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분만 중에 죽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주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기쁨과 환희가 있지요, 하지만 반면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살아 남을 수 있을 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의학적인 지식과 그 시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So Paul is encouraging them that the Lord will be with them during childbirth. They will be preserved. You don't have to fear that you're going to die in childbirth. The Lord will preserve you and keep you through this experience. If you just “continue in the faith and in love, and in holiness with sobriety,” you don't need to fear death during the delivery of your child.

그래서 바울은 아이를 낳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이 모든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또 절제함으로 거룩함에 거하면, 아이를 낳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nd now may the Lord enrich your hearts in His love and in His truth, that you may walk in fellowship with Him in a way that is pleasing unto Him. That the Lord will minister to you in a very special way in your hour of need. That He will come and take you by the hand and comfort you in your time of sorrow. That you just might experience in these days a greater realization of God's love and of God's touch upon your life as He ministers to you through His abundant mercy and grace in Christ Jesus.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진리로 부요케 하시고 또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 그와 동행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하며, 여러분들이 슬퍼할때 그가 여러분가운데 오셔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삶을 향한 돌보심을 이날에 여러분의 삶에서 인식하고 경험하길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자비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May God be with you, watch over you, and keep you in His love. In Jesus' name.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며,, 그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